



불교 이래서 좋다

육승현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4년

참선으로 하루 시작

불교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이시지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일 초하루날이면 어김없이 절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법회시간에 어디광도 부리며 할머니를 괴롭히기도 했고, 법당앞 마당이 마치 놀이터인냥 뛰어 놀았으며 점심 때는 어김없이 비빔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스님께 서는 이런 저를 타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이쁘다고 칭찬만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스님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끔 주말을 이용해 집안식구들과 함께 인근 사찰을 참배하는 것 이외에는 사찰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교와 멀어졌지만 학생시절 내내 어린시절의 추억때문인지,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인지 불교에 대해서는 그냥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인연은 대학 진학을 하면서 씩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교 종립 대학에 진학해 교양 수준이지만 불교를 배웠고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은 불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사찰 학생회에도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알고 난 이후 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생각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참선을 하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침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교의 힘이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불교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할머니가 고맙기만 합니다.



◇조계사 학생회는 6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41주년 기념법회를 보행했다.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희곡화극한 환머리의 대선배님들, 자기 키보다 더 큰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40대 중년의 보살님, 유치원생 자매를 업고 온 30대 가족, 말쑥한 정장 차림의 20대 아가씨 보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언뜻 보기도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대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처럼 서로 안부를 묻으며 즐거운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바로 조계사 학생회 동문이라는 점. 오늘은 학생회 창립 41주년 기념법회가 있는 날이다. 동문, 재학생 100명이 참석해 조계사 총무 도립스님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동문

조계사 학생회 창립 41주년 기념법회

환머리 선배님부터 교복입은 학생까지

행사후 체육대회 통해 한가족 확인

62년 창립,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회 모델

되기도 했다.

조계사 학생회가 40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문 선배들의 끊임 없는 지원과 동문들 간의 굳건한 친목 때문. 학생회 동문회는 회원만도 수천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서로 연락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에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동문모임 카페(cafe.daum.net/cbg)를 개설하고 매월 4째주 산행, 기수별 모임 등 자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같은 친목을 바탕으로 매년 학생회에 장학금 전달하는 등 금전적 후원과 함께 직업교육, 실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학

생회 졸업생이 지도교사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동문과 재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점도 학생회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조계사 학생회 창립멤버이자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열(58·자영업)씨는 "뜻뜻한 도반끼리 학생회를 창립한 지가 이제 같은데 벌써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선배를 후배를 도와 주고 후배는 선배를 믿고 따르는 정이 넘치는 학생회로 발전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왜, 청소년 참여인가”

청형, 청소년 정책 연구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현성)는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왜, 청소년 참여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정책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정진성 소장이 ‘정소

년 관(觀)과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김형주 연구위원이 ‘청소년의 참여의 정당성과 필요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창석 전문위원이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방안’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스님은 이날 “지난 해 월드컵 기간동안 청소년들이 보여준 역동성과 절제의 조화는 청소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확고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부 복원과 양분된 청소년 행정 지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무간도

조직에 잠입한 경찰 스파이와 경찰에 잠입한 조직 스파이, 그들의 얽힌 인연을 풀어나가는 영화 무간도. 무간도는 2003년 개봉작으로 맥조휘, 유위강 감독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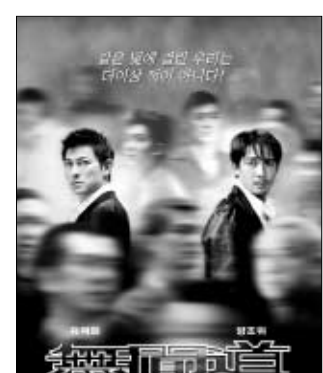
홍콩 경찰의 비밀 요원 진영인 역에는 양조위가, 삼합회의 숨은 조직원 유건명 역에는 유덕화가 연연을 맡았다.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발탁된 진영인은 범죄 조직 삼합회에 잠입하여 십 년째 조직원을 위장한 스파이로 살아가고 있다.

삼합회의 숨은 조직원 유건명은 열 여덟 살 때부터 경찰에 잠입해

현재 경찰 내에서 가장 뛰어난 강력반 요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간도(無間道)의 무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18층 지옥 중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고통 이외에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는 곳이다.

무간도 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서로 위치가 바뀐 두 사람의 삶 자체가 영원한 고통임을 시사한다.



2003 '세계 물의 해'

수질관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 있지만 가정에서 약간의 수질관리 요령만 익히면 식수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늘어 들 경우 수질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내 수도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급수관은 낡고 부식이 심한 옥내 급수관은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적

직접 가정내 수도관 연결 사용

낡은 관 교체, 수질검사는 121

서울시는 5월 29일 가정의 수질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탱크= 물탱크는 과거 급수 환경이 어려웠을 때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탱크는 물을 오래

정한 크기의 내식성관으로 바꾼다. 수질검사는 수도꼭지에서 계속 녹물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121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불어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열어

경력·기본과정으로 나눠 실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스님·이하 대불어)는 6월 7~8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 3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어린이 법회 지도 경력 3년 이상의 지도자들을 위한 심화과정과 어린이 법회에 관심이 있거나 지도 경력이 적은 지도자들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된 것이 특징. 기본과정은 어린이 법회 운영 개론, 지도교사가 알아야 할 기초교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심화과정은 어린이에게 경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름불교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본인도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불어는 6월 6일~8일까지 2박 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사상제를 활용한 상담기법'을 주제로 불교 상담 과정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양정수련관, 퓨전티어 동아리 발대식

끼·역량 지역사회 환원, 활동상 제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실시한 '우리는 퓨전티어' 동아리 공모전에서 '오픈 마인드' 등 16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5월 31일 수련관 소극장에서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퓨전티어'는 '섞이다'는 의미의 '퓨전'과 '자발봉사자'를 의미하는 '볼런티어'가 합쳐진 말로 '퓨전티어' 동아리 공모는 청소년 동아리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타인과의 관계 증진과 협동심을 배우는 동시에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청소년 동아리 활동상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프로그램.

이날 16개 동아리 회원 300여명은 자신의 끼와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서와 함께 동아리 소개, 댄스, 응원 등 자체 축하 공연도 함께 가졌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호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호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분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아간 : 031)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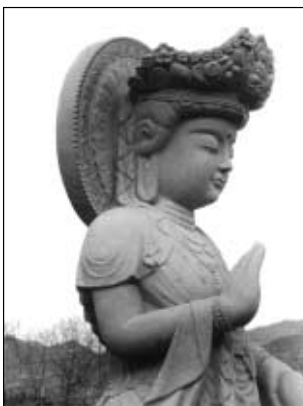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뚫히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제정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